‘K3리그 파란의 팀’ 양주의 이유있는 질주

‘U턴파’ 김태성, 양주시민축구단 중원에 서다

〈K3리그〉

대학졸업 후 호주 2부리그 선경험
양주서 윙포워드→중앙MF 변신
“K3리그 경기장도 많이 와주세요”

지난 11일, 충주 탄금대축구장에서 충주시민축구단(이하 충주)과 양주시민축구단(이하 양주)의 K3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경기가 펼쳐졌다. 결과는 0-0 무승부. 하지만 K3리그 어드밴스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두 팀의 운명은 ‘플레이오프 결과가 무승부일 경우 K3리그 베이직 정규리그 상위팀을 승자로 한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갈렸다. 충주와 양주의 K3리그 베이직 최종순위는 각각 3위와 5위다.

이번 시즌 양주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홈에서 펼쳐진 10경기 중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리그 막판에는 4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양주 연승행진의 중심에는 팀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성이 있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전인 지난 6일, 김태성을 서울 월곡역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김태성은 대학 졸업 이후 호주 2부리그를 거친 뒤 현재 양주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양주에 합류하기 전까지 줄곧 윙포워드 자리에서 뛰었다.

그는 “입단 당시 미드필더가 필요했던 팀 사정상 포지션을 변경하게 됐고, 중앙 미드필더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중앙에서 뛰다 보니 측면에서 뛸 때와는 달리 공을 많이 받는 점이 나와 잘 맞았다”고 말했다.

K3리그에서 2시즌째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김태성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리그 첫 득점의 순간이었다. 그는 “작년에는 출장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팀 내 상황이 바뀌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조금씩 출장기회를 잡게 됐다. 그러던 와중 리그 3라운드 평창 FC와의 경기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힘든 상황에서 터진 리그 첫 골이었기에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 축구는 인기가 많은 종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K3리그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들을 직관하는 문화가 아직 널리 자리잡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일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호주에서 생활했을 때는 축구에 열광적인 사람들이 어떤 경기든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축구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제일 부러웠다.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 편하게 경기를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며 축구팬들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김준희 대학생 명예기자 kimjh8370@naver.com

호주2부리그에서 뛰다 귀국해 양주시민축구단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성.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첼시부터 헤르타까지…‘No To Racism’ 열풍

〈인종 차별 반대〉

첼시, 인종차별자 출입금지뿐 아니라
‘유대인 학살 수용소 견학’ 캠페인도
獨 헤르타는 ‘무릎꿇기 시위’에 동참

첼시FC가 인종차별주의 팬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단순한 출입금지 조치가 아니다. 반유대주의 행동을 한 팬들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현장 견학과 시즌 티켓 상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대인 학살의 증거인 아우슈비츠 견학을 통해 인식 변화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첼시는 모든 비용을 감수할 예정이다.

축구계는 끊임없이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고 있다. FIFA는 ‘No To Racism(인종차별 반대)’ 구호를 통해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있다. 다니엘 알베스가 바르셀로나 시절 자신에게 던져진 바나나를 먹으면서 시작된 ‘바나나 캠페인’도 큰 효과를 봤다. 네이마르 등 유명선수들이 SNS에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알베스를 지지했다.

첼시와 같이 구단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베를린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무릎 꿇기 시위’에 동참했다. 무릎 꿇기 시위는 NFL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흑인이 사망한 사건을 비판하며 경기 시작 전 홀로 기립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데에서 시작됐다. 헤르타 베를린의 장내 아나운서는 “베를린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 헤르타는 다양성을 지지하며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미국 스포츠 선수들의 시위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이유다”라고 장내 방송에서 밝혔다.

FIFA에서 진행한 #SayNoToRacism 캠페인. 사진출처 | FIFA.com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다. 메수트 외질은 터키 대통령과 찍은 사진, 월드컵에서 독일의 부진으로 인해 자신에게 향해진 도 넘은 비판에 결국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그는 은퇴선언과 함께 자신의 SNS에 독일 축구협회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했다. 외질이 순수 독일인이 아닌 이민자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을 고발한 것이다.

인종차별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모든 인종이 모이는 축구에서도 그렇다. 인종차별과 싸우며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구계의 내일이 기대된다. 서서빈 대학생 명예기자 smallbeen@naver.com

웨일즈 대표팀 감독 긱스 초보감독 꼬리표를 뗄까?

긱스

지난 17일(한국 시각), 2018~19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덴마크가 웨일즈를 2-1로 꺾었다.

이날 웨일즈 벤치에서는 낯익은 인물이 웨일즈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원 클럽 맨을 논하면 빠질 수 없는 이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9년간 유소년부터 감독대행, 그리고 수석코치까지 역임한 라이언 긱스였다.

긱스는 2013~14시즌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부임과 함께 플레잉코치로 보직을 변경하며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맨유는 온갖 불명예스러운 패배 기록을 경신하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결국 모예스는 초라한 성적표를 쥐고 팀을 떠났다. 구단은 남은 일정을 라이언 긱스 감독 대행 체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긱스는 ‘퍼기의 아이들’로 불렸던 폴 스콜스, 니키 버트, 필 네빌 등 옛 동료들을 코치로 불러들였다. 긱스 사단이 출범하자 팬들은 전설들의 귀환에 옛 향수를 느낌과 동시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긱스 대행의 최종 성적은 2승 1무 1패 8득점 3실점.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맨유는 리그 7위를 기록하여 유로파 진출에 실패했다.

선수 은퇴와 동시에 수석코치가 된 긱스는 두 시즌 동안 반 할 감독을 보좌하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자 팀을 떠나 웨일스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이 되었다. 현역 시절 맨유에서만 963경기를 뛴 전설이지만 ‘감독’ 긱스에게는 아직 초보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과연 긱스가 패배를 딛고 조국을 더 높은 곳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현 대학생 명예기자 rerydh93@naver.com

NAVER 검색창에 굴러들어온 복 검색하세요 www.luckybog.com
다채로운 복어요리의 향연
굴러들어온 복
복국, 복불고기 전문점
대박난 복집 전수창업
“복어 가격의 거품을 확! 뺀
푸짐하고 시원한 복국 한 그릇에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까치복국 7,800
복국의 대중화 선언!
권리금과 임차비용이 높은
주요상권/복합상가/대형매장에서
창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최고의 가성비!
가격에 한번 놀라고 푸짐한 양과 깊은 맛에 한 번 더 놀랍니다.
경쟁상대가 없는 유일한 복국 브랜드!
자연 분말 육수 개발부터 창업과 매장운영의 성공노하우를 함께 합니다.
사계절 메뉴, 폭넓은 고객층!
남녀노소 폭넓은 고객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기가 없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제고!
일 년 내내 꾸준한 고객창출로 매출 안정화 및 운영수익의 극대화.
수원 광교(경기대)역 본점 031) 213-0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60, (이의동1248-2,리치프라자3)
창업문의 1522-2157
전국지역총판 및
창업하실분 모십니다!